

세월호 3·4층 이달까지 1차 수색 마무리

4일간 뼈 49점 수습...3층 수습 유골 허다운양 확인 수색시간 2시간 늘려...조은화 추정 유골 추가 발견

세월호 참사 발생 1129일 만에 미수습자인 단원고 허다운양의 신원이 확인됐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세월호 3층 객실 중앙부 우현(3-6구역)에서 수습된 유해의 치아와 치열을 감정해 결과 단원고 학생 허다운양으로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범의관(범치의학)이 수습된 치아와 치열을 육안 및 방사선(엑스레이)검사를 통해 분석한 다음 미수습자의 치과진료기록부, 치과 방사선 사진 사본 등의 자료와 비교·분석한 결과 단원고 허다운 학생과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현장수습본부가 공식적으로 신원을 확인한 미수습자는 침몰해역에서 유해가 발굴된 단원고 고창석 교사에 이어 2명으로 늘었다.

생존자들에 의하면 다운 양은 객실에 가방을 낚은 채 친구들과 4층 중앙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운 양의 친구는 다운 양이 뒤늦게 나온 자신을 앞 세워 헬기에 구조되게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말까지 3층과 4층 객실의 주요 구역에 대한 1차 수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하루 작업시간을 2시간 더 늘린 수색팀

은 이날도 3층 중앙 객실 옆 에스컬레이터 절단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충격으로 무너져 내린 4층 선미 부분을 본격적으로 수색하기 위해 5층 바닥 절단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4층 선미 다인실에서는 미수습자인 단원고 조은화 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이 곳은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수중수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추가로 유골이 수습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4일 유골 2점이 나온 것을 시작으로 이날 동안 선체 수색 및 진흙 분리 과정에서 뼈 49점이 수습됐다. 4층 중앙부 우현에서는 진흙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유골 2점이 발견됐다.

진도 침몰해역 해저 수색도 진행 중이다. 수중수색팀은 유실 방지용 철제 펜스 테두리 주변에서 전날 오후 7시까지 바지 1점 등 유류품을 추가로 수습했다.

이철조 현장수습본부장은 “선체 3, 4층 주요 구역은 이달 말까지 수색을 마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예정이다”며 “본격적인 폭염이 닥치기 전인 6월 중순 또는 6월 말까지 세월호 3~5층에 대한 1차 수색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기자 e16621@



21세기에 즐기는 '고싸움 놀이' 21일 광주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 테마파크에서 '제35회 고싸움 놀이 축제'가 열렸다. 고싸움 놀이 보존회 회원들이 격렬하게 고싸움을 하고 있다. 고싸움놀이는 국가무형문화제 33호로 지정되어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다카하시 “미쓰비시, 한국 소녀들 동원”

근로정신대 2차 손배소 일본인 첫 증인...내달 16일 선고

“역사는 감출 수도, 재구성할 수도 없습 니다”

지난 19일 오후 4시52분께 광주시 동구 광주지방법원 403호에선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일본인 다카하시 마코토(74)씨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해 법정 증인석에 올랐다. 그는 근로정신대 문제의 진실 규명을 위해 나선 첫 일본인 증인이다. 또,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정신대 소송지원회 공동대표다.

이날 증인석에 앉은 다카하시는 “1986년께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의 한 고등학교에서 세계사를 가르치던 교사로서 나고야 지역의 조선인 강제근로 실태를 조사하면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조선의 어린 소녀들을 근로정신대로 동원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보다 더 어린 학생들이 “여학교에 갈 수 있다. 일하면서 월급도 받을 수 있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타지인 나고야 끌려왔다

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엄청난 분노를 느꼈다”며 “이 분노가 지난 31년간 싸우게 된 출발점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다카하시의 증인석에서 마지막 발언을 앞두고 잠시 눈을 질끈 감았다. 다시 눈을 뜬 그는 “할머니들이 웃으면서 전국으로 갔으면 한다”며 “이 증인이 한일 양국 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카하시가 공동대표로 있는 ‘나고야 소송지원회’는 950명이 가입된 일본의 시민단체다. 이 단체는 지난 2007년 7월20일부터 명절이나 국경일을 제외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시위를 하고 있다. 도쿄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앞에서 임직원이 출근하는 아침 8시부터 점심시간인 낮 12시까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명예를 위해 유인물을 나눠주고 미쓰비시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증언을 끝으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2차 소송 3차 변론이 끝났다. 선고는 다음달 16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4 | 해질 19:35 | 달뜨기 02:59 | 달지기 15:24

봄날은 간다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15/30	보성	맑음	12/26
목포	맑음	16/26	순천	맑음	15/28
여수	맑음	17/25	영광	맑음	12/27
나주	맑음	12/29	진도	맑음	14/26
완도	맑음	15/25	진주	맑음	14/29
구례	맑음	11/29	군산	맑음	13/27
강진	맑음	12/27	남원	맑음	12/29
해남	맑음	12/27	홍산도	맑음	15/23
장성	맑음	12/29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바다	북~북동	0.5	북동	0.5
남부	남바다	남~남동	0.5~1.0	남동	0.5~1.5
남해	남바다(동)	남동	0.5	남동	0.5~1.0
서부	남바다(서)	남동	0.5~1.0	남동	1.0~1.5

23(화)	24(수)	25(목)	26(금)	27(토)	28(일)	29(월)
☁	☁	☀	☀	☀	☀	☀
14/23	18/25	15/29	14/31	16/32	16/32	16/30

사회적 약자 보호 앞장 ‘미스터 소수의견’

광주 원로목사 장인·‘학생 운동’ 부인도 영향...전남고 ‘경사’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 화제

김이수(64)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많이 내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별명이 ‘미스터 소수의견’이다.

전북 고창 출생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제19회(사법연수원 9기)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명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2년 국회 선출(야당인 민주당 추천)로 헌법재판관이 됐으며, 이정미 재판관에 이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법조계에선 소탈하지만, 강단 있고, 사람에 대한 애정이 많은 법관으로 통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합리적 진보를 위한 소신있는 판결을 많이 내렸다.

대표적으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홀로 반대 의견을 냈다. 2015년 현재가 전교조를 범외교조로 만든 법률 조항을 합헌 결정할 때도 그는 홀로 위헌 주장을 폈다.

김 지명자의 이같은 소신은 장인과 부인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장인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예정합동 중경총회장을 지낸 고(故) 정규우 광주중앙교

회 원로목사다. 부인 정선자 여사는 이화여대 학생운동 1세대로, 1973년 11월 ‘여성정치선언’의 주역이다. 그 또한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동안 구금된 전력도 있다. 1980년 5월에는 31사단 군법무관으로 5·18민주화운동과 맞닥뜨렸다.

김 지명자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 풀코스를 완주할 정도의 마니아다. 노래·판소리 등에도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교인 전남고는 기쁨에 싸여 있다. 김 지명자가 재경동문회장을 지낼 정도로 모교에 대한 애정이 깊기 때문이다.

오재우 전남고 총동창회장은 “전남고 2만 동문의 자랑”이라며 “광주와 모교를 사랑하고 챙기는 따뜻한 분”이라고 기뻐했다. 김정인 전남고 교장은 “전남고 교대의 자랑이듯 그대 또한 전남고의 자랑스러운 자라”는 학교 슬로건을 실천한 분”이라며 “어떻게 세상을 보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의 삶의 궤적 자체가 정의이고 후배들의 귀감이다”고 말했다.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 후배인 김진국 변호사는 “자부하고 조단조단 얘기하신다. 그동안 내용은 판결이 증명하듯 체계적이며 철학적 깊이가 있다. 무엇보다 열린 마음을 지니셨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미르샘메디컬센터 | 임대분양
나주 대표 랜드마크형빌딩

나주의 중심심장부에 건립된, 최초 메디컬센터 5월 입주임박!
시외버스터미널~남고문을 잇는 중심상권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1 767㎡ 약국입점확정, 커피전문점, 편의점, 이동통신대리점, 브랜드의류, 죽전문점, 대형전시장
2~5 794㎡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외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병원 환경
6 743㎡ 전문병원원 및 뷔페 레스토랑 등 대형연회장 환경

친철상담 | 첨단길잡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산구, 대표 이현민)
062-972-8845 · 010-3635-5800

24/35PY 분양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 온세계 아이조움

분양 전환 계약금 500만원

대출 70% OK!	이자만 납부 OK!	청약 통장 NO!	즉시 입주 OK!
------------	------------	-----------	-----------

24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35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분양문의 (062) 610-9232